

# '제1회 전주공예박람회' 열린다

14~16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 · 전주수공예사회적협동조합 거점공간서 다양한 행사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14~16일 3일간 전당 야외마당과 전주수공예사회적협동조합 거점공간에서 도내 공예인과 시민, 관광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전주공예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함께 사는 지구, 공예문화산업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판매존, 체험존, 이벤트존 등 총 60여 개의 부스로 운영된다.

사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38명과 '친환경 공예상품 발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10명 등 모두 50여 명의 공예작가들이 판매존과 체험존을 운영하게 된다.

이들 공예작가들은 3일간 전당 야외마당에서 작품 판매는 물론 풀꽃이 키링, 천연 수세미, 폐목재 화분걸이, 한지드로잉 시계, 오얏꽃 매듭브로치, 한지한복 와이닝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람회 기간에는 학교나 교육기관 등 공예교육 수요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상품 설명회와 체험프로그램을 열고, 공예작가와 수요자간 매칭의 시간도 이뤄진다.

특히 탄소배출 제로 등 친환경 공예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이 꾸미는 4미터 높이의 공예 공동작업물인 '지구를 살리는 공예나무' 만들기도 진행, '함께 사는 지구, 공예문화산업의 첫 걸음'이라는 대회 취지도 살려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주수공예사회적협동조합 거점공간에서는 공모전 수상작 전시는 물론 연령대별, 수준별 다양한 공예·교육 DIY키트도 전시된다.

시민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도 진행된다. 공예상품을 구매하거나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이

SNS 인증 등 스탬프를 찍을 경우 기념품과 교환할 수 있고, 전통놀이존에서는 자유롭게 우리놀이를 즐길 수 있는 코너도 운영된다.

한편 전당은 이번 박람회를 위해 모던 포크 듀오 '이상한 계절' 등 지역뮤지션을 초청, 행사를 빛낼 예정이다. 아울러 홍보관 1층에서는 한지플로리스트가 제작한 한지꽃 포토존, 홍보관 계단에서는 아간 조명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박람회는 공예가 우리 삶 속 하나의 문화로, 더 나아가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그 첫발을 떤 행사"라며 "행사의 횟수를 거듭하며 박람회가 성숙해 지고, 그로인해 지역 공예문화도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제5회 고창농촌영화제' 본격 준비 돌입

'고창, 영화와 사람을 잇다' 슬로건 · 포스터 공개... 28~30일 개최

고창농촌영화제가 제5회 슬로건과 공식포스터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화제 준비에 돌입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던 고창농촌영화제가 올해부터는 관객들과 직접 만나고, 고창읍성 앞 근린공원에서 개막식과 한국장편경쟁 영화상영 및 관객과의 대화,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5회 고창농촌영화제의 슬로건은 '고창, 영화와 사람을 잇다'로 고창농촌영화제 등 영화를 사랑해 주는 관객인 사람과 한국 영화를 잇는 연결 고리가 고창이 되겠다는 소통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또 공식포스터는 가을 농촌에서만 느낄 수 있는 황금 물결이 주는 따스함을 나누며 영화제와 관객이 서로를 바라보며 영화를 통해 행복과 기쁨을 나누며 마음을 이어가길 바라는 소통과 소망을 담았다.

이문구 고창농촌영화제 조직위원장은 "고창농촌영화제와 함께 하시는 모든 영화인과 관객들이 청정자연과 영화예술이 융합된 이곳, 고창과 이어서 활력과 행복이 넘칠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5회 고창농촌영화제 포스터

제5회 고창농촌영화제는 10월 28일부터 3일간 고창읍성 근린공원과 고창동리시네마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농촌영화제 공식홈페이지(www.grff.c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마을·로컬 중심 지역민과 함께하는 영화제

13~16일 제1회 설밭들산골마을영화제 '장수가야산골살이 펜션서 개최'

설밭들산골마을영화제(집행위원장 하영택)와 끄트머리국제마을영화제(집행위원장 신지승)가 함께 기획, 운영하는 '제1회 설밭들산골마을영화제'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장수가야산골살이 펜션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는 도시 중심의 국제영화제와는 다르게 마을과 로컬이 중심이 돼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영화제로, 헝가리, 이탈리아, 캐나다 감독들과 한국감독,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마을 중심의 자발적인 행사이다.

영화제 기간 중 매일 10분간 장수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설밭들마을을 찾는 해외감독들에게 진정한 로컬문화의 맛을 느끼게 하고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

이다.

첫날인 13일 개막작은 글로벌 네트워크 상 영화로 한국과 해외감독들의 다양한 영화적 흐름을 주민 입장에서 짧은 시간 조망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계획됐다.

개막작은 한국감독과 해외감독들, 주민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진행되며, 설밭들마을을 찾은 감독들의 장·단편영화를 주민들에게 프리젠테이션하게 된다. 일종의 집단 개막작 형태로 기존의 개막작 한 작품을 보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마지막날은 직접 주민들이 배우가 돼 자신들의 삶과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 설밭들마을 영화와 해외감독들이 설밭들마

을에서 바라본 영상과 사진들이 동시에 상영된다.

기존의 영화제들이 대부분 영화인과 영화 매니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면, 이 영화제는 지역주민들이 세계의 로컬영화 감독들과 함께 세계마을의 흐름을 살펴보고 감독들과 직접 영화제작의 중심이 되는 체험하게 된다.

OTT 시대에 극장과 영화제로부터 먼 거리에 있었던 전북 장수군 설밭들마을 주민들 중심의 독특한 마을영화제로 설밭들마을이 나아가길 비전과 방향을 스스로 모색해 보려는 문화예술적 시도의 하나이다.

나아가 마을을 찾는 해외감독, 한국 참여자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마을 밖의 영화감독, 예술적 시선으로 성찰해보고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역사박물관 특별기획전 '진안의 문화유산, 사진으로 만나다'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진안역사박물관에서 특별기획전 '진안의 문화유산, 사진으로 만나다' 전시회가 오는 2023년 4월 2일까지 개최된다.

군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들을 종합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알지 못했고, 잊고 있었던 지역의 문화유산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도록 마련됐다.

이에 진안지역에 소재하는 국가 및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진안의 문화유산 사진을 전시회가 함께 열린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보물인 성석린 고신왕지·금당사 괘불탱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천황사 대웅전·이덕응 초상화 등 시·도 지정문화재를 비롯해 용담향교 공적비·쌍계정 등 진안군 향토문화유산 사진



들이 있다.

특히 진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13건,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29건, 향토문화유산 34건 등 총 76건의 문화재 중 60여건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최명희문학관, '가을가을한 책 이야기, 책 나누기' 행사

오는 21~22일 최명희문학관·부채문화관 야외무대에서 '가을가을한 책 이야기, 책 나누기' 행사가 열린다.

이에 따르면 최명희문학관 행사의 올해 화두는 가을과 책. 특히, 이를 동안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리는 '판소리로 듣는 전주'와 '가을가을한 책 나누기'에서 책 이야기와 나눔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

소리꾼 경보비 씨와 고수 김강록 씨가 출연하는 판소리 공연에서는 소설 '혼불'과 희곡집

'달랑개' 등 전주를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으로 만든 창작판소리를 들려준다.

'책 나누기' 시간에는 여섯 명의 초청작가가 늦은 가을에 추천하는 네 권의 책을 소개하고 관객과 책 속 문장을 함께 읽으며 책의 여운을 이야기한다.

첫날에는 김영주 동화작가와 유수경 시인, 신여당 청소년소설 작가가 초대되고, 둘째 날에는 문신 시인과 윤일호 동화작가, 황지호 소설가가 무대에 선다. 초청작가들이 추천한 24권

의 책을 한꺼번에 만나는 야외전시 '가을가을한 책 이야기'와 김근해 동화작가와 함께하는 '전주 발(發), 엮서 한 장', 주름지와 헌책을 접어 꽃을 만드는 '종이꽃 피우다', 책 모양 열쇠고리를 만드는 '책고리 만들기', 정서연·정수현·조귀너 공예가가 꾸민 사진 맛집 '치어 언트 팟' 등 전시와 체험은 이를 내내 열린다.

올해 초청된 작가들은 다채로운 이력과 실력으로 시민과 만남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84-0570)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국립무형유산원, 카자흐스탄 알마티서 무형유산 현지교육 운영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재외동포 무형유산 교류협력 사업 일환으로 오는 21~24일 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현지 교려인들에게 우리나라 무형유산 '학연화대합설부'를 교육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현지에 거주하는 교려인을 대상으로 우리의 무형유산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직접 현지에 파견돼 전수하거나 현지의 전통예술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연구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으

로, 2014년부터 시작했다.

올해는 3년 만에 재개, 교육은 학연화대합설부를 배우고 결과발표(공연)하는 과정으로 마무리 된다.

한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의 교육은 국립교려교장과 교려인협회 소속 무용단을 대상으로 약 2주간 운영된다. 이번 교육에는 '학연화대합설부' 교육에 더해 교려인 일반인과 청소년에게 무형유산 공예분야를 선보이는 체험교육도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백년치기

농업이 곧 인생이었던 우리에게 농협은 평생 함께 가는 친구였습니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앞으로 100년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농업 혁신**

- 우리 농축산물 상품개발 및 품질 고급화
- '스마트 농업지원센터' 확충 및 스마트 농업교육 활성화
- 디지털 유통 시스템 고도화

**농촌 혁신**

- 영농인력 지원 '채류형 인력증가센터' 출범
- 고창사랑 기부채 추진 협의회 구성
- 농촌 자연 에메랄드사업 및 팜스테이 활용 확대

**ESG의 경영 혁신**

- 환경을 보호하는 녹색 경영
- 약자와 동행하는 나눔 경영
- 국민이 신뢰하는 정품관리 경영

NH 농협

남원시지부 지부장 권오정

지리산농협 조합장 정대환

전북지리산낙협 조합장 이안기

남원농협 조합장 박기열

운봉농협 조합장 서영교

남원원협 조합장 김용현

춘향골농협 조합장 임승규

남원원협 조합장 김용현

남원축협 조합장 강병무